

# 인력동원 의혹에 '립싱크 합창단' 물의

## 보훈처의 한심한 행태

국가보훈처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우뚝한 봉우리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자리를 급조한 동원 인력으로 채우는가 하면, 충분한 준비없이 기념공연 참여자를 섭외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34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유족들의 불참으로 비계된 자리를 가까스로 채웠다.

동원한 학생들이 참석자의 절반에 달했고 보훈처 직원, 보훈단체 관계자, 경찰도 유족 등의 빈자리를 메웠다.

하지만 보훈처는 5·18 기념식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5·18 당사자 및 유족(330명)·보훈단체(237명)·학생 및 교사(632

## 5월단체 불참에 보훈단체 회원·학생들로 빈자리 채워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도 몰라 일부 합창단 입만 뾰긋

명) 등 1199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5·18 기념식에 참석한 추모객들은 그러나 "5월 단체 회원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며 "유공자석에는 학생이나 보훈단체 회원들이 앉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념행사에 참여하는 200명의 합창단도 급조됐다. 광주 아마추어 합창단과 예술고 학생, 대학생으로 합창단을 꾸리는가 하면, 아예 이날 합창할 노래조차 모르는 합창단원도 있었다. 이날 합창곡 중 하나인 '오월의 노래'의 경우 노래를 부르는 척하거나 아예 입을 벌리지도 못하는 합창단원도 보였다. 합창단원 일부는

"일당 5만원에 동원됐다", "5·18 단체가 요청한 것으로 잘못 알고 왔다"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보훈처는 광주 지오이아·빛고를 시니어·음사랑·북구청 시니어·남구청 합창단과 세종시 예총·어머니 합창단, 기타 개인 합창단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훈처와 달리, 남구는 남구청합창단이 공연에 참석한 적 없다고 해 또다른 논란도 일고 있다.

학생 동원설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광주 B중학교 교사는 "(최근) 몇 명 보내달라는 공문을 받았

는데, 5·18 기념식에 가겠다고 말한 학생들만 데려왔다"고 말했다.

기념식 공식 순서에 포함된 광주지방보훈청장의 경과보고도 논란을 낳고 있다.

전홍범 광주지방보훈청장은 기념식 경과보고를 통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부당한 국가 권력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5·18을 정의했다. 또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과 계엄군 충돌", "5월 20일 광주시민 저항" 등으로 간략히 설명했다.

하지만 왜 수백 명의 시민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져 부실한 경과보고라는 평가가 기념식장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특히 마지막 날인 '5월 27일 계엄군의

## 보훈처의 한심한 행태 보니

●기념식 참석자  
보훈처 "5·18 유족 330명 참석"-- 추모객들 "5월단체 회원 거의 안보여"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단 공연  
보훈처 "남구청합창단 참여"--남구청"참석자 단 한명도 없어"

●인력 동원 의혹  
보훈처 "교육청에 협조 요청"--교사 "몇명 보내달라는 공문 받았다"



광주시민 해산 시도'라는 문구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주체를 광주 시민으로 오해하도록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학생을 동원했

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각 지방보훈처는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주체를 광주 시민으로 오해하도록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학생을 동원했



현화하는 유족들 지난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민주화운동 34주기 추모식'에서 유족들이 현화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총칼에 스러진 '그날'의 기억 생생히 담겨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사연에 절로 숙연

### '그해 오월전' 가 보니

34년 전 소여물 주겠다며 집을 나선 뒤 여태껏 돌아오지 못한 아이, 때 맞아 입심한 채 숨진 여성...

그림에는 34년 전 잔인한 '그날'이 생생하게 담겨있었다. 그림 속 주인공 얼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의 희생양이 된 억울함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묻어났다.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 행사로 마련된 '그해 오월전'은 지난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에 스러진 5·18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과 사연을 담은 그림들로 채워졌다.

대학생 예술동아리 '다락'의 기획으로 광주 대학생 등 20명은 국립 5·18 민주묘지 내 '역사의 문' 앞 길에 68명의 민주 열사 사연을 담은 작품을 선 보였다. 군부 독재에 맞서 끝까지 도정을 사수하다 숨진 윤상원 열사 등

항쟁 지도부 뿐 아니라 엄마 말을 듣고 형 마중을 나갔다가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희생된 아이 등 평범한 시민들의 사연을 담았다.

대학생들은 5·18 기념재단의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는 민중항쟁 증언록에 소개된 희생자들의 사연과 마지막 순간을 담담하게, 때로는 거칠게 표현해냈다.

'다락' 이지선(여·29) 대표는 "최근 '일베'를 비롯한 특정 인터넷 사이트와 보수 언론 등에서 5·18 희생자를 '폭도'로 매도하는 것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어 전시를 마련했다"면서 "5월 당시 행방불명된 뒤 여태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기회가 된다면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그해 오월전'은 24일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전시된 뒤 25일부터 서울로 옮겨 전시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대통령 기념사도 없어...정부의 '5·18 망각'만 남았다

### 안이한 역사 인식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놓고 정부와 5월 단체가 대립하면서 결국 5·18기념식이 불협화음을 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정부의 알레르기 반응은 '5월 역사 왜곡'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등 안이한 역사 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통령 기념사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정홍원 국무총리가 "34년 전 빛고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며 기념사를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기념식에서 발표한 기념사를 자신의 국정 철학을 제시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활용해왔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18일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무총리가 대독할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국민 통합'

의 정치적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끊이지 않는 5월 역사 왜곡 뿐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둘러싼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는 탓에 더욱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기념사를 보내지 않았다.

당장, 5월 단체 안팎에서 정부의 무성의한 행태에 대한 반발로 5월 유공자들이 기념식을 불참한 데 이어, 대통령 기념사마저 총리 기념사로 격이 낮춰지면서 현 정부의 5·18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12년 열린 32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보내지 않았다. 당시 이전 대통령은 2010년, 2011년 대통령 기념사를 총리가 대독하게 했다가 2012년 기념식에는 총리 기념사로 대체했다. 취임 첫 해 이후 4년 연속 불참한 것까지 맞물려 '5·18 홀대'라는 비판도 쏟아졌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의전상 총리가 참석해 총리 메시지를 냈다"면서 "지난 2010, 2011년 대통령 기념사 대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그룹 '빅뱅' 태양 생일 맞아 팬들이 5·18재단에 518만원 성금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태양의 팬들이 태양의 생일(18일)을 맞아 5·18 기념재단에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을 전달.

○...1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태양의 팬 사이트 '너는 태양 나는 달' 회원들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34주년을 앞두고 후원금 518만원을 태양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5·18 민중항쟁을 기념하는 재단에 전달했다는 것.

○...재단 측은 "평소 태양이 관심을 나타냈던 5·18 민중항쟁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자료를 만드는 데 써달라"며 팬들이 성금을 보내왔기 때문에, 후원금 518만원을 5·18 중등교재 제작에 쓰기로 결정.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5P - 13층**

- 실坪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정도
- 매매가 - 3400만원

**29P - 12층, 15층**

- 실坪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13층, 사무실 적합, 전체 올수리**

- 실坪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2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500만원

경매투자

- ▶ 경매 특수비법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입찰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개인지도, 3개월 완성
-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투자자 모심

2억원 이상, 2년정도